

# '세계적인 으뜸관광' 윤곽

### 무주군, 생태모험공원·안성철연지구·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등 추진

무주군이 올해부터 새로운 관광기반 시설을 구축하면서 '세계적인 으뜸관광'을 실현하게 돼 지역발전의 이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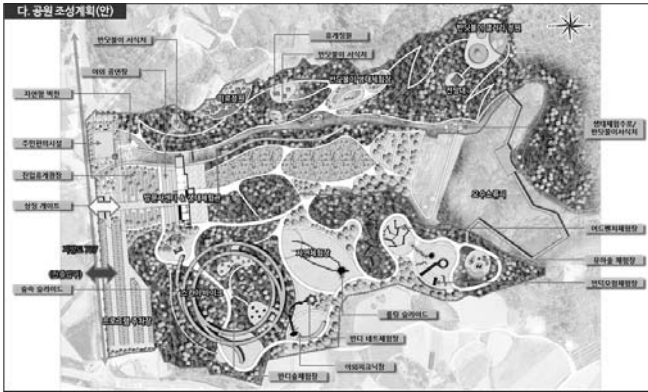
무주군에 따르면 관광자원의 지역 발전을 가속화 시킬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안성철연지구 사업 등 관광개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군은 무주를 당산리 일원에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 사업에 가속을 댄다. 총사업비 196억 원을 들여 체류형 관광단지인 가족형 레저테마파크로 조성하며 생태체험교육관을 비롯해 반딧불이 생태체험장, 생태습지, 어드벤처 시설, 어린이모험놀이터,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한다.

군은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착수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등 각종 행정절차를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4월 공사에 착공, 오는 2023년 12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체류형 관광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반딧불이 생태와 주변 관광지와 연계된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지 발굴 취지다. 안성 철연지구 일원 전체의 자연 자원을 활용해 조성될 안성 철연지구 관광자원화 사업도 올 들어 본격 착수 된다.

안성면 공정리 산6 일원에 마련될 안성 철연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은 사업비 164억 원을 투입해 올해 3월 착공, 오는 2024년 6월 마무리한다. 마을 숲속놀이터와 휴게쉼터, 철연계곡 산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 계획안.

림욕장, 출렁다리, 철연폭포 전망대가 들어선다.

안성 철연지구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용추폭포에서 덕유산 철연폭포까지 산림생태탐방로(둘레길)를 연결해 안성 철연 고유의 자연생태자원 학습공간으로 추진돼 이목이 쏠린다.

무주를 대표하는 힐링산책코스 조성으로 옛 철연 지구의 관광 명성 회복 및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부남 금강변이 갖고 있는 우수한 강점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지 발굴차원에서 추진되는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도 올해 활기를 띤다.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은 부남면 대유리 773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사업비 194억 원을 투자한다. 오는

4월 첫 삽을 뜨게 되며 오는 2024년 12월 사업을 마친다.

레포츠체험센터를 비롯해 금강테마공원, 산책로와 신선전망대, 테마모험놀이터, 인공폭포 등을 조성하며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부상과 함께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된다.

관광진흥과 이형재 과장은 "무주를 당산리 일원에 생태체험과 모험레포츠가 결합된 가족형 레저테마파크(문화공원)를 비롯해 안성 철연지구 사업,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화 사업이 조성되면 새로운 체험 및 관광자원을 확보하게 되면서 각광받는 무주의 미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홍삼제품 해외 수출 전망 청신호

### 진안군홍삼한방클러스터, 새해 미국·중국 등 해외 수출 성공

사)진안군홍삼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단(단장 김정배, 이하 사업단)은 7일 2022년 연초부터 미국, 중국 등 해외 수출에 성공해 앞으로의 판로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먼저 미국 시장을 향해 새해 첫 홍삼제품 수출에서 관내 홍삼가공 제품 10개 품목 2만13,000달러(한화 2,500만 원)를 미국 수출에 성공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전북인삼농협GMP의 진안홍삼골드데이즈(농축액), 진안군수품질인증제품인 프리미엄홍삼정골드(스티빙), 송화수홍삼의 고려령밀 홍삼절편, 홍삼환, 홍삼편, 홍삼캔디, 젤리 등이다.

또한 홍삼·뿌리삼을 홍콩경유 중국 광저우에 수출한다. 이번 수출량은 329.1kg(5500만원)으로 아직 수량은 미비하나 중국 수출 판로를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품목 또한 뿌리삼 위주에서 진안군의 우수한 홍삼가공제품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4~5년근 홍삼가공제품 수출과 관련한 바이어 상담이 활발히 이어지는 등 밝은 전망이 기대

되고 있다.

사업단은 어린이홍삼 젤리홍, 뼈망주스 등 어린이 홍삼제품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미국 FDA 승인 및 인증 절차를 완료하여 해외시장 판로 개척 준비도 마쳤다.

특히 사업단은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해 주고, 해외 바이어 및 유치 발굴을 통해 수출 판로를 모색해주는 등 진안홍삼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대비 수출 실적 6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업단은 앞으로 진안홍삼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상담회 및 세미나, 국내·외 박람회 참석으로 우수한 진안 관내 홍삼 제품들을 선보이며 중국, 일본 등 수출을 위한 인증절차를 계획하여 진안홍삼 제품의 해외 수출 판로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김중훈 농식품부 차관, 장수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 방문

김중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6일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설 성수품인 사과 수급 상황 점검을 위해 장수군 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AFC)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김 차관은 장영수 군수, 김용준 장수농협조합장, 박영철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와 함께 현장 점검을 하며,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및 명절 기간 사과 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군은 사과·토미토·오미자 등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으로 유통 판로 모색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장수군 중점 현안사업인 농촌협약사업과 장수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차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해 추진 중인 사업들 중 장수군 농업발전에 적합한 사업을 검토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장수군에서도 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설 성수품인 사과 공급·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개인 방역관리 철저, 주기적 소독, 방문자 간 거리 두기 준수, 백신 접종 독려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군, 화재 취약 세대 대상 가정용 소화기 지급

무주군이 이달 중순에 화재에 취약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정용 소화기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가정용 소화기는 주민들의 안전과 화재예방, 화재진압과 예방을 위해 우선순위가 높고 있는 무주군 의용소방대연합회(연합회장 이효상(남), 윤정순(여))로부터 기탁을 받은 성품으로 주목을 받

고 있다. 무주군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최근 무주군을 방문해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가정용 소화기 100여 대를 기증했다.

무주군과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어르신들 가운데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보고 소화기 지급시 어르신들이 원할 경우 사용법에 대해 안내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연이은 매출액 경신

### 지난해 매출액 70억원 달성

진안군은 지역 농산물의 판매 확대를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직접 추진 중인 로컬푸드 사업이 안정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9년 1월에 호성동(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문을 연 직매장 1호점을 통해 매출 30억원, 2020년 60억원을 돌파하며 급성장한 가운데 이어 지난해에는 인근 지역 대형마트 개장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출액 70억원을 달성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로컬푸드 사업이 안정과 내실화의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진안군 농산물

에 대한 '도시민의 신뢰 확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은 규모화 및 도매 중심의 농산물 생산·유통시장에서 판로를 찾던 데 어려움을 겪던 관내 중소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농가소득 증대를 이끌었다.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은 판매 금액 중 90% 가량이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체계로 1만 원어치를 팔면 9,000 원에 가까운 금액이 생산자의 몫이다. 일반적인 유통체계 안에서는 농가가 보통 매출의 60% 내외 정도만 수익을 지급받는 데 비해 농가 중심의 유통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덕분에 농산물

의 생산 및 판매를 포기했던 고령농 등 중소농의 농업활동이 되살아나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

또한 직매장 내 판매 농산물은 잔류 농약 320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와 농가가 책정한 합리적인 가격정책과 함께 진안군 농산물에 대한 '도시민의 신뢰 확대'를 이뤘다.

전준성 군수는 "올해는 로컬푸드의 영역을 확대해 진안군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을 통해 기획생산·유통·소비를 연결하는 공공조달 체계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기반을 다지고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까지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